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0호 【루게 제24703호】 주제103(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된 김책공업종합대학교 교육자살림집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령도 따라 교육강국, 인재강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기상인양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올랐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 동지가 동행하였다.



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우리 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 사상이 반영된 건축물, 주제성과 민족성, 독창성과 편리성,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희한한 건축물이며 날이 발전하는 선군조선의 건축술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대걸작품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1현관 5층 1호, 46층 1호와 기단층부분에 건설한 상점과 식당 등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살림집들의 부엌과 식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로경준 동지, 김진근 동지를 비롯한 건설부대 지휘관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홍서현 동지, 김책공업종합대학 당비서 백민형 동지가 맞이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조국을 받드는 뿌리가 되어 후대교육 사업에 한생을 목숨 바쳐가는 교육자들을 참다운 애국자, 혁명가로 값

이 내세워주시고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덕이 낳은 사랑의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명당자리에 터전도 잡아주시었으며 건설력량투입과 설계, 시공, 자재와 설비보장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안고 산악같이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방대한 건설공사를 최단기간에 질적수준에서 끝냄으로써 당창건 69돐을 맞으며 살림집건설을 완공할데

대한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개 호동의 46층짜리 초고층살림집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대동강에 떠있는 뚝배갈다고, 외벽에 열선 반사판유리까지 씌우니 정말 멋있다고 기뻐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책공업

사실, 서재, 부부방 등을 구석구석 흠잡을데가 없이 시공했으며 살림방벽면처리도 세련되게 하였다고, 특히 전실입구처리를 잘하라고 하였는데 개구 좌우면에 장식장을 설치해주니 특색있다고 평가하시었다.

2 면 으 로 계 속



《E. C》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력사는 오늘도 전한다, 열혈투사들의 그 격정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라도 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때로부터 이젠 8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라도제국주의동맹!

얼마나 하찮은 사연들과 잊지 못할 추억들이 이 말속에 담겨져 있는 것인가.

추억의 노를 저어 《E. C》가 첫 고고성을 타치던 저 멀리 화천의 언덕으로 마을 달려가보면 우리의 눈앞에 제1면적 때오르는 모습이 있다.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한 격정적 회담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로인 《E. C》의 첫 성원들, 손에 손을 잡고 모두가 한평생을 이어 주조국과 민족을 위한 혁명의 길에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던 열혈의 투사들의 잊을수 없는 모습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우리 당의 뿌리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E. C》의 산아들이 88년전 휘발하강가에서 목청껏 부른 노래, 그것은 영도자를 받드는 길에서 뜻을 같이하고 생사를 같이할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였으며 동지에 대한 노래였다.

이런 전우애, 동지애에 기초하여 만 단을 헤쳐왔던 《E. C》와 더불어 흘러온 우리 당의 백송의 력사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영지는 곧 제2의 나라이며 동지를 얻는 것은 천하를 얻을수 없다는것을 신조로 삼으시고 동지를 얻는 길, 동지를 위한 길이요 자신의 한몸을 돌보지 않으시였으며 수천리 밭갈도 마다하지 않으시였습디다.》

조선혁명은 동지애로 맺을 올린 력사에 투쟁없이 성스러운 혁명이다.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고 동지애로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있어서 조국은 곧 동지였고 동지는 곧 조국이었다.

조선혁명의 초행길을 목숨써서 헤쳐갈 결사의 각오를 가진 전우들을 묶어내려 혁명조직을 내오고 그들에 의거하여 위대한 령제, 독립, 자주, 평등의 혁명적 투쟁을 벌여왔던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었다.

그이께서는 동지를 얻기 위한 투쟁의 첫 자욱을 화성의속에서 때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성의속시절에 생사를 함께 할 혁명동지로 키우신 한사관장들은 모두 우리 혁명의 첫 핵심플랑크론서 질세의 위인을 태양으로 받들어모시고 불패의 전위대열을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성의속시절에 되새겨보노라면 거제의 피타는 념원을 한몸에 안으시고 새혁명의 혁명조직을 결성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모습이 승업하게 안겨온다.

주제 15 (1926)년 10월 17일

당시 화성의속의 총관이었던 김시우의 집으로 열혈청년들이 모여들었다.

최창철, 김리갑, 리재우, 강병선, 김원우, 박근민...

생전에 늘 동지를 잘 사귀고 동지를 많이 가져야 한다. 아무리 정당하고 훌륭한 목적을 가진 사람도 생사를 같이할수 있는 동지들이 없으면 원대한 뜻을 이룰수 없다고 하신 김형직선생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시고 우리 수령님께서 혁명동지를 키우신 청년들이었다.

뜻을 같이하고 생사를 같이할 혁명동지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는 우리 수령님의 심정으로 참으로 뜨거운 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지들앞에서 격동적인 연설을 하시고 새로 결성하려는 조직의 명칭을 라도제국주의동맹으로, 약칭으로는 《E. C》로 할것을 제의하시였다.

연락도 없는 수하의 운동방, 이것이 《E. C》의 결성장소였다.

바로 여기에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라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다.

라도제국주의동맹은 인제, 독립, 자주, 평등의 민족해방, 계급해

방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 세대 청년들이 력사의 진군 속에서 창조한 순결하고 참신한 새혁의 정치적생명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면서 일본제국주의를 라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라도하고 세계에 착각과 압박이 없는 새 세상을 건설할것을 천명하시였다.

참으로 그것은 처음으로 조선혁명이 나아가갈 길을 밝힌 주체적인 혁명강령이 되었고 조선혁명에 관한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참다운 혁명조직의 탄생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었으며 자주성의 원칙에 의하여 진행된 조선혁명의 시원을 열어나가는 획기적인 사변이었다. 《E. C》가 결성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을 전두에 모신 새 세대 혁명가들이 혁명의 믿음직한 담판자로 시대의 앞장에 서게 되었으며 우리 당의 뿌리가 지심깊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언변이 좋은 사람도 있고 서투른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가 혁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열변을 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E. C》의 첫 성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투쟁목적은 결코 순탄치 않을것이며 전진도상에는 돌파하지 어려운 애로와 난관도 허다할것이다. 그러나 우리 라도제국주의동맹의 열혈청년들은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투지로 온갖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며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라도하고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여야 한다. ...

그때 최창철동지는 격동된 심정을 누르지 못하며 자리에 서 펴백 일어 나 위대한 수령님을 라도제국주의동맹 맹원이라 높이 모실것을 정중히 제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E. C》가 결성되던 날을 추억하시며 그 성원들로 보면 또 다 민만

지 않은 인물들이었다고, 연설을 하라고 하면 연설을 하고 문분을 쓰라고 하면 문분을 쓰고 노래를 지었다고 하면 노래를 짓고 격술을 하라고 하면 격술도 할수 있는 끝끝한 재목들이었다고, 지금말로 한다면 일당백, 일당천의 청년들이었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하신것처럼 《E. C》의 산아들은 우리 혁명이 맺을 올렸던 그 시기 육탄이 되어 주체의 새시대를 열어나간 투사들이었다. 조선민족이 낳은 가장 우수한 열혈의 혁명가들을 위한 참다운 혁명적의 첫 혁명전우들이었다.

유구한 인류 력사의 어느 갈피를 보아도 우리 수령님처럼 10대에 벌써 비범한 천리해안의 예지, 거창한 포부와 리상으로 충만한 투쟁목표를 제시하시고 참다운 새 세대 혁명가들로 주체혁명의 혁명적전위조직을 결성하시어 자주성의 기치아래 새로운 시대를 펼친 위인은 찾아볼수 없다.

비록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실천체계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조국의 운명을 구원할 신족의 태양이시며 그이를 받들 때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뼈사하며 있었지만 모두가 혁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열변을 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E. C》의 첫 성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투쟁목적은 결코 순탄치 않을것이며 전진도상에는 돌파하지 어려운 애로와 난관도 허다할것이다. 그러나 우리 라도제국주의동맹의 열혈청년들은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투지로 온갖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며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라도하고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여야 한다. ...

그때 최창철동지는 격동된 심정을 누르지 못하며 자리에 서 펴백 일어 나 위대한 수령님을 라도제국주의동맹 맹원이라 높이 모실것을 정중히 제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E. C》가 결성되던 날을 추억하시며 그 성원들로 보면 또 다 민만

백전백승하는 조국의 오늘을 생각할수 있는가.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을 곧 조선혁명이신 신조를 간직하고 수령님을 받들어 열혈의 심장을 바친 김형, 차광수동지들을 비롯한 《E. C》의 산아들을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시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따라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력사적시기가 도래한 오늘 휘발하강가에 울리던 혁명의 노래, 동지애의 노래는 새시기를 이어 끊이지 울린다.

《E. C》의 혈통과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수천수만의 동지들이 집결된 성세를 이루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지애로 흘러온 우리 당의 력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불멸의 의지를 담아 이렇게 선언하시였다.

우리는 동지애로 시작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온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동지애로 뜻이 완성해 나가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과 함께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대로 당을 강화하고 이 땅에서 사회주의의 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꽃이 헌신하시였다. 《E. C》의 첫 불꽃에서 그들이 들었던 단정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천만민을 최후승리의 돌격전으로 부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자.

이것이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공존 사상감정이요 높은 정신력이다.

어버이수령님 마련하신 《E. C》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원수님 믿음을 받들어 조국방위에 사회주의의 강성국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울 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전우들의 대부대가 있어 88년전 휘발하강가에 울리던 노래소리 끝없이 메아리친다.

본사기자 백영미

조선의 밤아들들에 대하여

불멸의 혁명승가 《조선의 별》은 조선혁명이 맺을 올린 첫 시기에 《E. C》의 산아들이었던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이 높이 부르던 태양청송의 승가이다.

주제 17 (1928)년 10월 김형직지는 동지들앞에서 어느때 없이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동무들! 지금부터 《조선의 별》이라는 노래를 배우겠습니다. 이 노래는 그 어떤 유명한 시인이나 음악가가 창작한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 지어본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숙한 점이 없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의 열화같은 청송의 거세한 불꽃이 있습니다.》

첫 당조직 - 건설동지사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과 더불어》에는 《첫 당조직-건설동지사》라는 제목아래 《E. C》로부터 시작된 혁명당창건에 관한 내용이 감동깊게 서술되어있다.

《E. C》의 강령은 앞으로 창건될 우리 당의 강령의 기초로 되었고 《E. C》가 키워낸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은 우리 당창건의 골간으로 되었다.

주제 19 (1930)년 7월 3일 카를의 진행회에서는 우리 당의 태어났고 씨앗인 첫 당조직-건설동지사가 결성되었다.

첫 무장조직

선군으로 수놓아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력사의 갈피에는 주제 19 (1930)년 7월 6일이 높이 떠오른다.

뜻깊은 그날 이룩한 고유수에서는 조선혁명가들의 첫 혁명적무장조직인 조선혁명군이 결성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성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조선혁명군은 자기의 적극적인 정치선전활동으로 무장투쟁의 핵심적골간을 육성하며 무장투쟁에 필요한 무기를 마련하고 군사적경험을 축적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굳게 결속하여 조직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본사기자 백영미

조선혁명군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은 조선혁명군 대원들의 심장을 뚫어준다. 혁명의 무기를 어깨에 걸고 누리에 불을 붙여 되고 철책을 마스며 마치고 되리라 는 불같은 맹세를 심장으로 다지던 조선혁명군 대원들, 그들이 바로 《E. C》가 키워낸 열혈혁명가들이었고 당창건의 골간을 이룬 우리 혁명의 첫 세대들이었다.

조선혁명군의 결성은 그후 과발리의 총성으로 이어졌고 안도원 소사하에서의 력사적인 항일무장투쟁의 탄생을 낳았다.

본사기자

주제 95 (2006)년 10월 17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라도 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8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은 나라가 《E. C》와 더불어 백송을 아로새겨온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위력과 존엄, 양양한 전도에 대하여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그 시각 또 하나의 위대한 력사가 새겨지고있는줄 사람들은 그때 다 모르고있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E. C》의 결성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E. C》결성 80년을 맞는 그 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감회는 참으로 깊었다. 바람새처럼 화천의 언덕에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혁의 혁명조직인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어 당의 뿌리를 마련하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추억이 더욱 뜨겁게 새겨

고귀한 추억, 불변의 신념

일찍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세태물과 파경, 시대와 교조로 얼룩진 선현의 민족주의운동으로는 조국해방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절감하시고 그와는 다른 길, 새로운 투쟁의 길을 찾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이셨다.

울은 투쟁강령을 가지고 대중에게 거머쥐어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벌려 나가는 혁명의 전위조직을 내올것을 구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마침내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세 세대 열혈청년들로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E. C》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연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었다. 《E. C》가 결성됨으로써 조선혁명은 뚜렷한 투쟁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자주적

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력사의 주체로서 자기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게 되었다.

우리는 라도제국주의동맹이라는 이명칭 하나만 놓고도 수령님께서 얼마나 위대한분이신가를 잘 알수 있고, 10대의 어린 나이에 벌써 세계제국주의와의 전면대결을 선포하신 우리 수령님은 위인들의 위인이시라고 뜨겁게 추억하신 위대한 장군님.

혁명당건설의 성스러운 력사를 마련하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있는 《E. C》의 결성이 가지는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돌려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E. C》는 우리 당의 뿌리이고 선군의 시원이며 단결의 전형이고 우리 혁명의 승리의 기치이다. ...

우리 당의 뿌리, 선군의 시원, 단결의 전형, 혁명승리의 기치! 일군들은 탄복을 금치 못하며

그이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보았다.

해마다 맞고보면 10월 17일이었지만 《E. C》의 의의와 력사적지위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생각해본적 없었던가.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탄복한 정식화였다.

《E. C》의 전통이 있어 우리 당이 로속하고 세련된 백전백승의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우리 군대가 무적불승의 강군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E. C》를 뿌리로 하여 우리 당은 영도자의 두리에 당과 군대, 인민이 한 마음을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을 이룩할수 있었고 조선혁명은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전진할수 있었던 것이다.

장내에는 격정의 파도가 일렁이였다.

《E. C》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의 만단사연들이 눈앞에 어려와 모두가 심장은 새차게 높뛰었다. 위대한

전통을 가진 우리 당의 력사를 위대한 장군님 따라 더욱 빛내어갈 신념과 의지가 새차게 맥박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E. C》결성 8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고보니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 《E. C》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은 걸어온 길도 멀지만 앞으로 걸어갈 길도 멀다고 하시며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그 어떤 준엄한 시련과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E. C》의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하여 수령님을 끝까지 개척하신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

장병 《E. C》와 더불어 우리 당을 백송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뜻대로 주체혁명 위업을 기어이 완성해갈 위대한 장군님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가 력사의 한페이지에 글문자로서 아로새겨지는 감동깊은 순간이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당을 따라 선군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만수대 언덕에서- 본사기자 찍음

김정일동지 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회고모임 진행

김정일동지 회고위원회 결성식과 회고모임이 9월 30일 울란바토르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몽골평화혁신기구,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주체사상-선군사상연구학회, 주체연구센터, 김정일화협회, 몽골조선친선협회, 몽골-민주조선친선대리회 등의 인사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청되었다.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위원장 르. 하이싼다이와 지리시라성원 두 나라동아는 결성식에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허활판으로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였다.

결성식에서는 르. 하이싼다이 가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김정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출판하며 업적도론허, 사진전시회 등 정지문화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이어 진행된 회고모임에서 회고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게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올려주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3주에 즈음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행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몽골-민주조선친선대리회 회고모임은 우르르르르르르 김정일동지께서 인류자주위업현에 쌓아올린 거대한 업적을 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고 조선과의 친선관계발전에 적극 기여할것이라고 확인하였다.

김정일동지 회고위원회가 8일 로마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서기장 마리오 카르보넬라가, 부위원장으로 이탈리아의인민공산주의자장 국제부장 알폰소 갈디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주에 즈음하여 유럽지역의 정당, 단체들의 련합도론허와 회고모임 등 정지문화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필승불패의 조선로동당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은 오늘 조선로동당 제1비서인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스웨덴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은 조선로동당은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 조선인민은 김정은제1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강성국가를 만드신 일떠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인민과의 친선 및 현대성 앙골라위원회 위원장제리 엘리스 디켈코프는 위대한 김정일각하를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당창건 68년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김정은각하의 탁월한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단마르크, 스웨덴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축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내각총리 박봉주 동지에게 중국의 당과 국가령도자들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승리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장덕강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박봉주 동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5년에 즈음하여 당신들이 축전을 보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성변명과 조선인민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배이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일부 아프리카나라 방문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수단공화국, 콩고공화국 등 일부 아프리카나라들을 곧 공식 친선방문하게 된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백승의 역사를 아로새겨온 위대한 당

인류반제자주위업을 향도하는 <ㄷ. ㄷ>의 기치

주체 15(1926)년 10월 17일, 우리 혁명의 빛이 오를 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러갔다. 8년이라는 긴긴 년월을 새기며 또다시 밝아온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제국주의와의 전면대결이 선포된 화제의 언덕에 뜨거운 추억을 실어가고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과 함께 개척되고 전진해온 반제자주위업의 성스러운 력사가 찬란히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현시기 세계인민들앞에 내걸고있는 공동의 투쟁과업입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력사적기였으며 우리 조국과 민족이 영원히 승리와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만년미배를 담보한 위대한 사변이었다.

<ㄷ. ㄷ>가 있어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와 학정 밑에 신음하던 우리 인민은 자기의 원대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장엄한 혁명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20세기 초엽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던 시기였다. 조선민족의 반일기운과 독립의지가 강화되는데 걸맞은 일제는 삼천리강국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고 총칼로 혁명투쟁의 장성을 진압해나갔다.

3. 1인민봉기와 6. 10만세운동을 비롯한 대중적반일투쟁들은 그것을 이끌어줄 위인의 출마를

평도를 받지 못한것으로 하여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수많은 혁명가,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저기 남의 나라 문지방을 넘나들며 조선의 독립을 구걸하였던 한 받은것은 값없는 동정이나 멸시뿐이었다. 거기에는 형형색색의 독립운동단체들이 평도권싸움과 말공부만 하면서 《혹하사변》과 같은 동족상쟁의 류형적비극까지 빚어냈다.

1919년 4월에 조직되어 《조선민족을 대표하는 거국적인 정부》라고 자칭하던 상해임시정부 역시 대통령제로, 국무위원회로 하면서 권력분배를 위한 끊임없는 개각을 음모와 감투싸움을 벌이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시고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의 독립을 성취하리라는 력사의 선언을 하시였다.

이때부터 우리 혁명은 자기의 확고한 투쟁목표와 방도, 강위력한 전위조직을 가지고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진군을 개시하게 되었다.

하기에 <ㄷ. ㄷ>의 위대한 기치는 오늘도 우리 혁명의 앞길에 나뭇기면서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로 힘있게 향도하고있는것이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세계반제민족해방운동의 앞길에 신심과 희망을 안겨준 력사적전환점의 횡단이었다.

<ㄷ. ㄷ>는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력사의 그날에 벌써 세계피압박인민들의 앞길에 반제투쟁의 표대로 높이 솟아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ㄷ. ㄷ>

강령에서 제시하시고 혁명생애의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하신 자주의 원칙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치로 되고있다.

전세계의 제국주의를 완전히 청산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그것은 제국주의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억누르는 민족적억속과 계급적 지배의 근원이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세기대중의 투쟁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기때문이다.

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을 독점적고물리력을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대량무기로, 국무위원회로 하면서 권력분배를 위한 끊임없는 개각을 음모와 감투싸움을 벌이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시고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의 독립을 성취하리라는 력사의 선언을 하시였다.

이때부터 우리 혁명은 자기의 확고한 투쟁목표와 방도, 강위력한 전위조직을 가지고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진군을 개시하게 되었다.

하기에 <ㄷ. ㄷ>의 위대한 기치는 오늘도 우리 혁명의 앞길에 나뭇기면서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로 힘있게 향도하고있는것이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세계반제민족해방운동의 앞길에 신심과 희망을 안겨준 력사적전환점의 횡단이었다.

<ㄷ. ㄷ>는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력사의 그날에 벌써 세계피압박인민들의 앞길에 반제투쟁의 표대로 높이 솟아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ㄷ. ㄷ>

고있었으며 인도네시아는 수백년간 네메를란트침략자들에게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약탈당하고있었다. 300여년간의 장구한 세월 에스빠나식민지로 끝없이 약탈당한 필리핀은 1898년 미국을 새 《주인》으로 받들어야 했다.

우리 나라는 일제의 발골밑에서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국주의를 타도하는것을 최종목적으로 내세우시고 식민지나라 인민들이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짓부셔버림으로써 민족해방의 위업을 수행해야 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이것은 식민지나라 인민들이 거족적인 반제민족해방운동에 떨쳐나선 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로선으로, 투쟁강령으로 된다.

<ㄷ. ㄷ>의 기치는 오늘날 반제자주위업 실현을 위한 인류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반제자주화 위업을 끝없이 전진하고 있는 성과도 이룩되었지만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은 의연 계속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간섭과 전횡으로 하여 적지 않은 나라들이 억속의 멍에를 쓰고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약탈전쟁》과 같은 비극적사태들이 발생하여 합법적주권국가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국제무대들에 서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혼리가 정당화, 합법화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인류의 리상이 실현된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인디아 역시 영국의 식민지로 시달려

그런것으로 하여 <ㄷ. ㄷ>의 기치는 인류자주위업의 종국승리가 이룩될 때까지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나가야 할 전진투기치로 된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이제 날에도 그러했지만 오늘 자주를 지향하는 인류의 념원은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날이 갈수록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아가고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거대한 대하가 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의 역류를 사멸시키며 세계의 모든 대륙에 사뭇치고있다.

지금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우리 당의 뿌리이고 선군의 시원이며 단결의 화신인 <ㄷ. ㄷ>의 기치가 나뭇고있다.

<ㄷ. 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이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원칙으로 되고 <ㄷ. ㄷ>에서부터 형성되고 혁명의 전력사적과정에 끊임없이 공고된 일심단결이 우리 당의 영원한 혁명철학으로 되고있으며 <ㄷ. ㄷ>에 시원을 둔 선군의 길이 우리 당의 영원한 백승의 진로로 되고있다.

우리 혁명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도끼와 전쟁도발책들을 걸음걸음 짓부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기에 지금 진보적인류는 <ㄷ. ㄷ>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인류의 반제자주위업의 앞길에는 언제나 <ㄷ. ㄷ>의 기치가 승리의 표대로 높이 솟아 빛을 뿌릴것이다.

주 세 명

혁명적당건설의 고귀한 지침

명철한 가르침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탄자니아혁명당대표단을 만나주신것은 주제 77(1988)년 4월말이었다. 당시 아프리카에 돌아간후 <당대제>의 광풍을 맞받아 당을 유지시키고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쏟고있던 탄자니아혁명당의 실정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당건설방향과 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사람들에게 대한 교양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교양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머리에 누이 쓸고 때가 끼게 되며 나

명철한 가르침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제 82(1993)년 5월 어느날 우리 당 건설정형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평양에 있는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당대표단을 접견하여주시였다.

접견석상에서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집권당으로서 어떻게 건설해야 이상적인가고 문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명달달투어 놓인 복숭아를 손에 드시고 당은 철저하게 복숭아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손에 드신 복숭아를 구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주제 74(1985)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럽의 어느 한 나라 공산당대표단을 접견해주시고 담화를 나누신적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힘장을 긍정해주면서 때때로 나라 혁명을 그 나라 당이 책임지고 수행하는것만은 다른 나라 당들의 경험에 아무런 좋은것이라고 해도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수령님께서는 비유해서 말

주 세 명

명철한 가르침

중에는 변질된다고, 매일아침 세면을 하듯이 때를 씻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부 나라들에서 교양사업을 하지 않으니 당이 대중속을 뿌리를 박지 못하고 계주실을 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을 늘 교양하여야 그들이 사상적으로 병들지 않고 혁명의 심장, 혁명의 얼굴을 가지고 일을 계속 잘해나갈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탄자니아혁명당이 아니라 혁명하는 모든 나라 당들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당건설의 고귀한 지침이었다.

명철한 가르침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제 82(1993)년 5월 어느날 우리 당 건설정형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평양에 있는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당대표단을 접견하여주시였다.

접견석상에서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집권당으로서 어떻게 건설해야 이상적인가고 문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명달달투어 놓인 복숭아를 손에 드시고 당은 철저하게 복숭아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손에 드신 복숭아를 구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주제 74(1985)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럽의 어느 한 나라 공산당대표단을 접견해주시고 담화를 나누신적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힘장을 긍정해주면서 때때로 나라 혁명을 그 나라 당이 책임지고 수행하는것만은 다른 나라 당들의 경험에 아무런 좋은것이라고 해도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수령님께서는 비유해서 말

주 세 명

위대한 전통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

우리 조선로동당은 가장 속하고 세련된 당으로, 혁명적인 본보기당으로 그 이름 높이 떨치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한결같이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불은 기치를 승려만을 아로새기며 백승을 펼쳐올수 있는것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지어주신 <ㄷ. ㄷ>의 해를이 있었기때문이라고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은 《조선로동당의 력사적부러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1926년 10월 17일 <ㄷ. ㄷ>를 결성하시였다.

<ㄷ. ㄷ>가 결성된 때로부터 조선인민의 항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ㄷ. ㄷ>의 강령은 조선로동당 강령의 기초로, <ㄷ. ㄷ>의 리념은 당건설과 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 배짱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풀어나갔다.

<ㄷ. ㄷ>의 성원들은 김일성동지를 평도자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일심단결의 시원을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넘진하시고 김일성동지께서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대진군의 앞장에는 <ㄷ. ㄷ>의 성원들이 지니였던 투철한 반제자주정신으로 무장한 조선로동당원들이 서있다. 오늘 조선에서는 당과 군대와 인민이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을 이루고있다. <ㄷ. ㄷ>의 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평도모에 조선혁명은 앞으로도 승리만을 펼쳐놓았다. <ㄷ. ㄷ>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그렇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빛나게 이어가시는 것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조선로동당은 <ㄷ. ㄷ>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가며 자랑찬 력사만을 수놓아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박승영

위인의 력사

10대의 나이에 우리 수령님께서

위인의 력사

10대의 나이에 우리 수령님께서

위인의 력사

10대의 나이에 우리 수령님께서

위인의 력사

10대의 나이에 우리 수령님께서

위인의 력사

10대의 나이에 우리 수령님께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유엔총회 및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가 15일 문건 A/69/383-S/2014/668호로 유엔총회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 포되었다.

시 위 와 파

미국의 미주리주에서 반인종주의의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있다. 지난 8일 밤 이 주의 스프링필드에서 마이어즈라는 흑인 청년이 백인경찰이 쓴 총탄에 맞아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각계층 중들이 들



미국에서 경찰의 살인만행에 항의하여 시위

집요한 유대인정착촉화정책

이스라엘이 유대인정착촉화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최근 이스라엘당은 동부무드스에 2500세대의 유대인살점집을 새로 건설할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스라엘의 무모한 처사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국제적우려를 자아내는 말라까해협문제

최근년간 말라까해협수역에서 해적들과 테로조직이 서로 결탁하여 각종 테로행위를 감행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지역정세가 매우 엄중해지고있다.

지난 시기 말라까해협은 서쪽이 넓고 동쪽이 좁으며 섬과 암초가 많아 배들이 한데 몰리게 되고 통과속도도 느리다보니 력대적으로 해적들의 활동이 우월한 지역으로 되어왔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이 해협에서 해적들의 습격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당시 세계인 해적습격사건의 60%가 이곳에서 발생하였다는것을 놓고볼 때 말라까해협이 얼마나 해적들의 활무대로 되어있는가 하는것을 짐작할수 있다. 오늘날 동남아시아지역에서 벌어지는 해적행위에 의해서만도 세계적으로 매해 160억USS의 경제손실이 초래되고있다고 한다. 9.11사건이후 세계 각 나라들에서 반테로의 도수가 높아짐에 따라 테로분자들은 특역에서의 활동이 어렵게 되자 활동무대를 해상으로 옮기고있다. 오늘날 테로분자들의 습격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그 규모가 큰데다가 위험한 수단까지 리용하고있어 국제적인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말라까해협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해상통로이다. 세계의 4분의 1에 달하는 해상무역이 이 해협에서 진행되고있다. 말라까해협을 통과하는 배는 하루 수백척, 한해에 8만척이상에 달하고있으며 그 수는 년간 8%씩 증가하고있다고 한다. 무역이나 수송수요를 해상을 통하여 실현하고 해상을 통한 나라들사이의 교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오늘 말라까해협을 비롯한 해상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있다. 그리하여 국제적으로 해양활동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고

국제적우려를 자아내는 말라까해협문제

말라까해협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해상통로이다. 세계의 4분의 1에 달하는 해상무역이 이 해협에서 진행되고있다. 말라까해협을 통과하는 배는 하루 수백척, 한해에 8만척이상에 달하고있으며 그 수는 년간 8%씩 증가하고있다고 한다. 무역이나 수송수요를 해상을 통하여 실현하고 해상을 통한 나라들사이의 교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오늘 말라까해협을 비롯한 해상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있다. 그리하여 국제적으로 해양활동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고

국제적우려를 자아내는 말라까해협문제

말라까해협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해상통로이다. 세계의 4분의 1에 달하는 해상무역이 이 해협에서 진행되고있다. 말라까해협을 통과하는 배는 하루 수백척, 한해에 8만척이상에 달하고있으며 그 수는 년간 8%씩 증가하고있다고 한다. 무역이나 수송수요를 해상을 통하여 실현하고 해상을 통한 나라들사이의 교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오늘 말라까해협을 비롯한 해상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있다. 그리하여 국제적으로 해양활동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고

말라까해협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해상통로이다. 세계의 4분의 1에 달하는 해상무역이 이 해협에서 진행되고있다. 말라까해협을 통과하는 배는 하루 수백척, 한해에 8만척이상에 달하고있으며 그 수는 년간 8%씩 증가하고있다고 한다. 무역이나 수송수요를 해상을 통하여 실현하고 해상을 통한 나라들사이의 교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오늘 말라까해협을 비롯한 해상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있다. 그리하여 국제적으로 해양활동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고

말라까해협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해상통로이다. 세계의 4분의 1에 달하는 해상무역이 이 해협에서 진행되고있다. 말라까해협을 통과하는 배는 하루 수백척, 한해에 8만척이상에 달하고있으며 그 수는 년간 8%씩 증가하고있다고 한다. 무역이나 수송수요를 해상을 통하여 실현하고 해상을 통한 나라들사이의 교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오늘 말라까해협을 비롯한 해상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있다. 그리하여 국제적으로 해양활동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고